

## 전남도 '공공·소아응급·산부인과' 필수의료 병상 늘린다

### 제3기 병상수급 관리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제출 예정

### 지역 특수성 반영 소아 응급 등 필수 병상 공급 조정

전남도가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공공분야·소아응급·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병상을 늘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전남도는 '제3기(2023-2027) 병상수급 관리계획(안)'을 마련을 위해 지역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안은 보건 의료 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3기 병상수급 관리계획은 지난 8월 보건복지부의 병상 관리 체계 구축과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 등 병상 수급 기본시책에 맞춰 전남도의 특성을 반영해 수립했다.

전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목포권·여수권·순천권·나주권·해남권·영광권 등 6개 중진료권으로 분류했다.

최근 5년간 병상 공급량, 인구 추계, 재원일수, 병상 이용률, 유출입 지수 등을 기초로 2027년 지역별·병상 유형별 병상 공급 및 수요량을 분석해 병상수급 관리계획을 세웠다.

분석 결과에 따라 6개 중진료권을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하고, 공급 제한·조정 지역에 대해선 앞으로 병상 공급을 점차 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다만 전남의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공공분야, 소아응급,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병상은 심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신규 증설이 가능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또 제3기 병상수급 관리계획에 따라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르면 앞으로 100명 이상의 종합병원은 병상 신·증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장

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개설이 가능해진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병상 공급 과잉 지역에 속한 전남도의 병상수를 적정 수준으로 줄여 무분별한 병상 증가로 인한 입원의료비 증가, 지역의료 체계 불균형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수립한 제3기 병상수급 관리계획은 보건복지부 병상관리위원회의 병상수급 관리계획 조정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기쁨 가득 졸업식 12일 경기도 시흥시 함현고등학교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학생들이 기념촬영 하며 추억을 남기고 있다.

## aT, 배추 5천t·무 3천t 수매비축...생산농가 가격 보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국민 채소인 배추·무 가격 안정과 생산 농가 가격 보호를 위해 수매 비축에 나섰다.

12일 aT에 따르면 이번 비축 물량은 과잉 생산 우려가 높은 배추 5000t, 무 3000t이다.

겨울배추는 주산지의 기상 여건이 회복돼 평년 대비 2만4000t 초과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겨울무도 평년보다는 적지만 지난해보다 18.7% 증가한 5만7000t이 초과 생산될 것으로 예측돼 수급 조절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수매부터 배추의 플라스틱 박스 저장 도입으로 저장성을 보완해 더욱 질 좋은 비축 물자를 시장과 가공업체에 공급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도 톤백 벌크 포장을 처음으로 도입해 물

류 효율화를 통한 신속한 시장격리와 가공용 활용성 증대를 함께 도모하고 있다.

비축 물량은 겨울철 한파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급 불안에 대비해 향후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문인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급이사는 "정부 수매와 비축은 농민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 '12·12 의로운 전사' 정선엽 병장 유족 "땀땀한 죽음...반란군 사과를"

"이제는 땀땀한 죽음이지 않겠습니까? 반란군들이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와 맞서다 전사한 고(故) 정선엽 병장의 동생 정규상 씨는 12일 광주 북구 동신고등학교에서 열린 '의로운 동문고 정선엽 병장 44주년 추모식' 직후 이 같이 밝혔다.

세 살 아래 동생인 정씨는 "처음에는 금방 살아 돌아올 것처럼 죽었다는 사실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 세월이 지나 이제는 순직에서 전사로 바로 잡혀졌다"라며 소회를 털어냈다.

이어 "반란군들이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화해 없이 세상을 뺐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라고 했다. 정호용·박희도 등 군사반란을 획책한 신군부 생존 인사들에 대해서는 "말을 꺼내고 싶지도 않다"며 분한 마음을 애써 참았다.

정씨는 고 정 병장의 애국·군인정신을 기리며 고교 동문들이 심시일반 뜻을 모아 지난 2017년 심은 '소나무'를 거듭 어루만지며 회한에 잠기기도 했다.

정선엽 병장은 1956년 전남 영암에서 태어나 동신고를 졸업, 조선대 전자공학과에 입학한 직후인 1977년 3월 입대했다.

국방부 헌병이었던 정 병장은 1979년 12월 13일 새벽 육군본부 지하병커에서

후임을 대신해 초병 근무에 나섰다.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신군부에 가담한 1공수여단 병력이 병커로 들이닥치자, '중대장 지시 없이 총기를 넘겨줄 수 없다'며 끝까지 저항하다 반란군 총탄에 맞고 숨졌다.

이후 정 병장은 부당하게 군 인사법 상 교육훈련 중 사망한 '순직자'로 분류됐다. 지난해 12월에서야 국방부 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 '전사'로 재분류, 43년 만에 국가유공자로서 명예를 되찾았다.

특히 정 병장은 최근 관객 수 700만 명을 넘긴 흥행 영화 '서울의 봄'에서 12·12 군사반란에 맞서다 순진 '조민범 병장'의 실존 인물이다.

최근 영화가 흥행하면서 반란 당시 진압군 전사자 2명 중 1명으로서 정 병장에 대한 관심과 추모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 정 병장이 학업을 마치지 못한 조선대도 명예 졸업장 수여를 추진하고 있다.

광주 동신고등학교 총동창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추모식은 개회 선언, 추모 묵념, 고인에 대한 보고, 추모사, 유족 대표 인사, 현화 순으로 열렸다.

앞서 이날 오전 정 병장의 고향인 전남 영암군에서도 '내 고장 영웅 정선엽 병장 추모행사'가 열렸다.

김희면기자



## 탄소중립 시대 새로운 내일을 열어갑니다

- 미래의 에너지 솔루션 소형모듈원자로 (SMR)
-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APRI400
- 탄소배출 제로 대용량 수소 생산
- 해외에서 입증된 기술력 원전수출 사업확대